

독일, 가격이 싼 인터넷 전매 사업자로 공급처 변경이 증가

독일에서는 2008년 2월에 300개사 이상의 사업자가 가정용 전기요금을 인상하였다. 인상률은 평균 9%로 2000년 이후 독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2007년 7월 이후는 가정용 요금의 총괄원가규제가 폐지됨으로써 가격 인상의 사전 신청이 불필요하게 되어 사업자에 있어서는 가격 인상이 용이한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형 사업자가 거액의 이익을 올리고 있는 것 때문에 수용가 측의 비판이 아주 심해지고 있다. 실제로 일부 대형 사업자에 있어서는 수용가 이탈이 진행되고 있으며 보다 요금이 싼 사업자로 공급처를 변경하는 가정용 수용가가 증가하고 있다.

1. 전기요금의 동향

독일의 표준적인 가정의 연간 평균 전기요금은 2000년의 416.85유로에서 2007년에는 501.55유로가 되어 약 20%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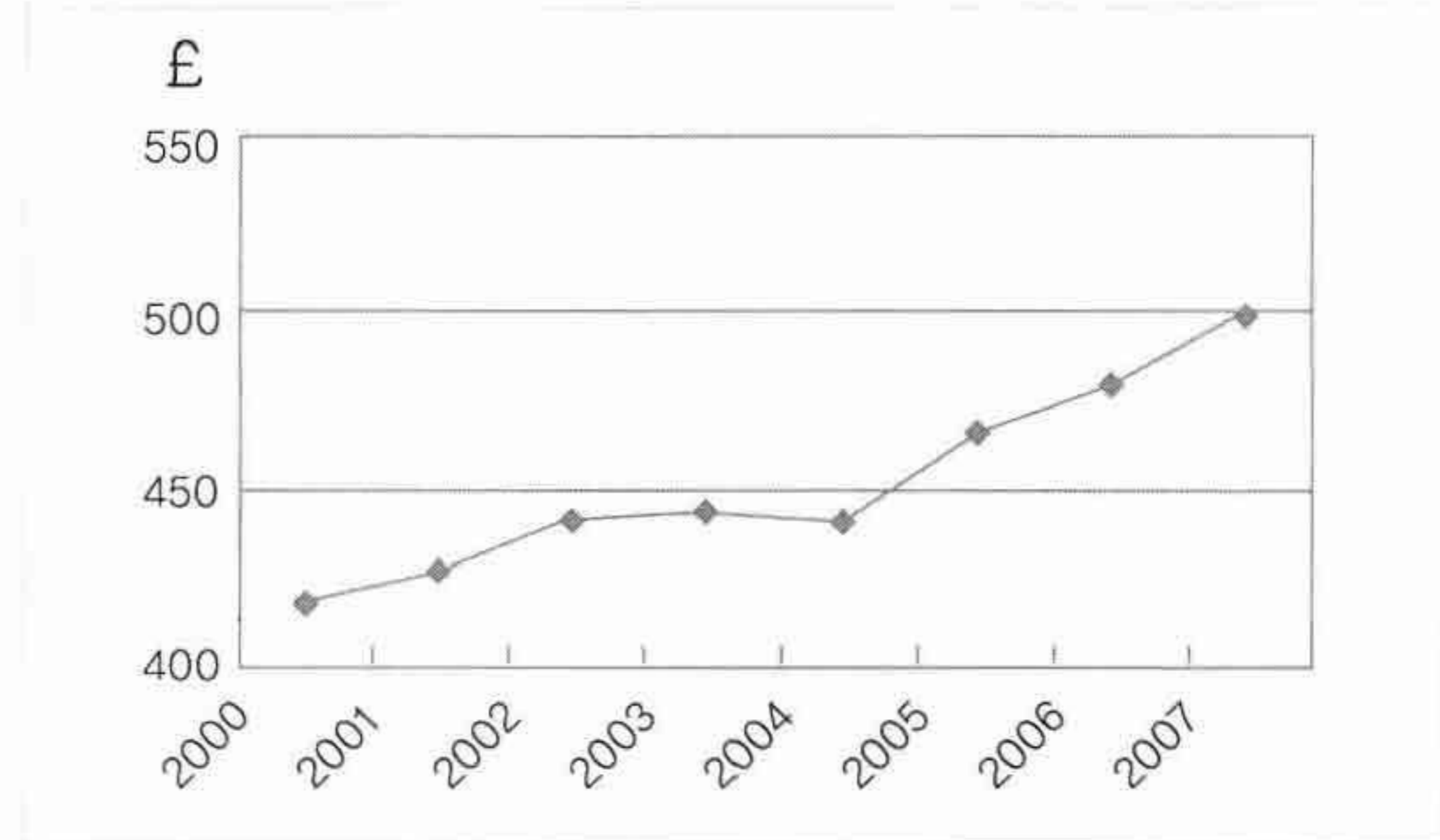
2. 2007년의 공급처 변경 현황

독일의 연방계통규제청의 발표에 의하면 전체 수용가의 약 4,000만 호 가운데 2006년의 변경 호수는 약 52만 호 였는데 대하여 2007년 중에 공급사업자를 변경한 수용가는 수는 100 ~ 120만 호가 되어, 변경 수는 작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가. 바텐파르 사에서 다수의 수용가가 이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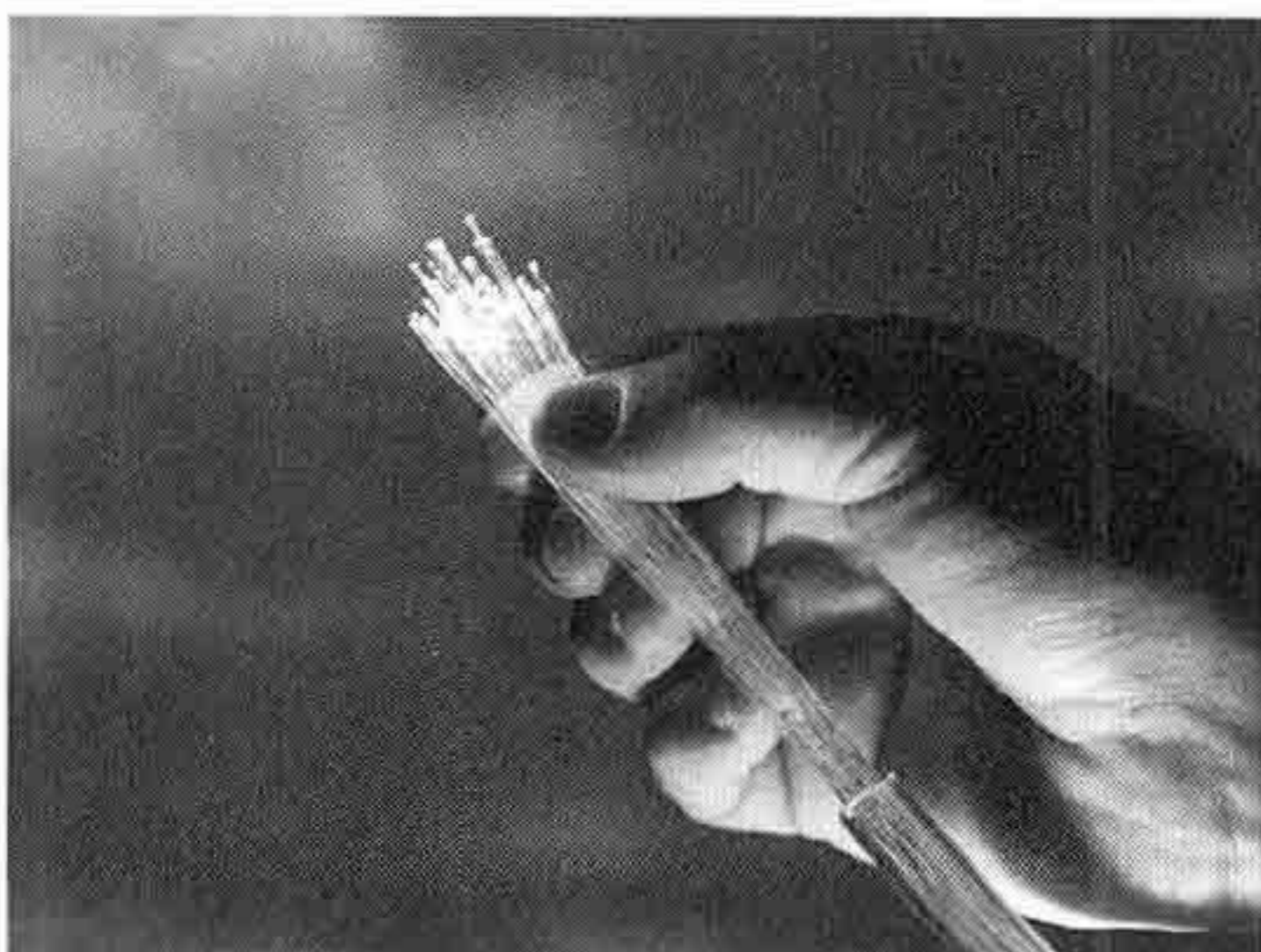
2007년의 수용가의 변경 호수 <독일 가정의 연간 전기요금의 추이>

중에 25만 호가 독일의 4개 대 전력그룹의 하나인 바텐파르 유럽사에서 이탈한 부분이다. 이 회사는 거액의 이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7월에 요금 인상을 실시하여 수용가로부터 강하게 비판을 받았다. 또한 그 직전의 2007년 6월 28일에는 크



(주) 연간 전기 사용량을 3,500kWh로 시산, 세금 제외.

룬메르, 브른스뷰테르의 2개소의 원자력발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자동정지 하였다. 7월 7일 운전 재개한 브른스뷰테르 원자력발전소에서는 폭발의 위험성이 발생함으로써 다시 조업이 중단되었다. 방사능 누설 등의 영향은 없었으나 그린피스의 지적을 받아 이 회사의 정보 공개의 서투른 조치가 드러나 수용가들의 비난이 더욱 심해졌다. 한편 영업 면에서는 다른 3개 대 회사는 각기 자회사를 설립하여 저가격 방침의 전국 규모로 영업을 전개하여, 점포 없이 인터넷을 활용하여 기존구역 이외의 수용가를 모으고 있다. 이러한 요인으로 바텐파르 사의 수용가 이탈이 진행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역시, 많은 수용가를 잃게 된 바텐바르 사는 다른 회사에 때늦은 상태에서 2008년 1월부터 국내의 약 3분의 1 지역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같은 모양의 서비스를 개시하고 있다. 그리고 2008년 1월의 요금 인상을 유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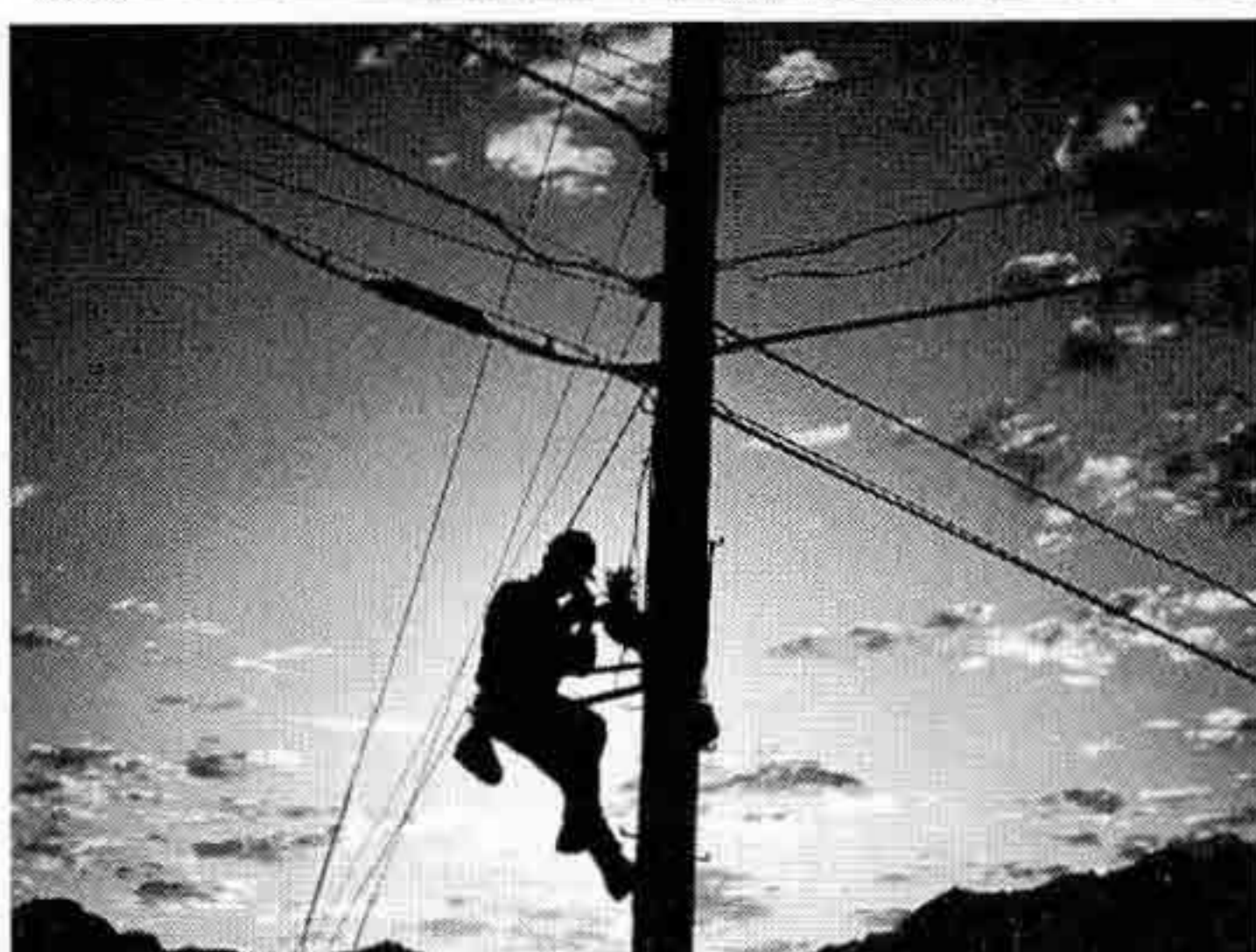
나. 소매사업자의 수용가 확보 실태

그 지방의 대 전기사업자로부터 이탈 한 수용가는 주로 3개 대 그룹이 설립한 가격이 싼 판매 자회사로 이동하고 있다. 이에로 사(EnBW 자회사)는 2007년의 한 해 동안에 새로이 10만 호의 수용가를 확보하였다. 에이 비 아인팻바 사(E. ON 자회사)는 2007년 2월에 사업을 시작하여 약 46만 호의 수용가를 확보하였다. 에프리모 사(RWE 자회사)의 수용가 수는 2007년에는 3만 호 증가하였다. 그 밖에 네덜란드 제2위의 전력회사인 누온 사의 독일 자회사 누온 도이칠란드 사는 2007년에 수용가 수를 누적 20만 호까지 늘렸다. 어쨌든 그 지방의 기존 사업자보다 가격을 싸게 설정하고 있다.

회사명	회사의 형태	연간전기요금 (유로, 세금포함)	2007년의 수용가의 증가수 (총 수용가 수)
에이 비 아인 팻 바	E. ON 사의 인터넷 전매 자회사	761.73	46만 호(46만 호)
이에로E. ON 사의	인터넷 전매 자회사	789.59	10만 호(130만 호)
에프리모	RWE의 인터넷 자회사	709.39	3만 호(17만 호)
바텐팔르 유럽	바텐파르 사의 전력·가스 소매회사	470.00	▲ 25만 호(330만 호)
누온 도이칠란드	네덜란드 제 2위의 전력회사 누온 사의 도이칠란드 자회사	690.45	(20만 호)
트리아넬	지방자치단체의 전력회사의 공동출자 자회사	768.84	불명
리히트 브릭	재생가능 에너지 전문의 소매회사	804.15	17만 호 (39만 호)
RWE 라인루르	RWE의 전력·가스 소매회사 (그 지방의 기존 사업자)	796.67	(1,580만 호)

(주) 연간 전기요금은 에센 시의 2008년 2월 7일 시점의 전기요금을 근거로, 연간 사용량 3.5000kWh로 시산. 출처: 일본전기협회 발행 「전기협회보」

트리아넬 사(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의 25개 지방자치단체 등의 전력회사 출자)는 저가전략으로 2007년 8월에 독일 가정의 공급에 참여하여 2년 동안에 20





만 호의 가정수용가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가격에 있어서 비교해보면 에센 시에서 연간 3,500kWh 소비하는 가정의 연간 지불액은 에프리모 사가 연액 709.39 유로, 기존의 대 사업자 RWE 라인루르 사는 796.67 유로로서 높게 되어 있다.

또한, 가격은 싸지 않으나 100% 재생가능 에너지를 공급하는 리히트브릭 사는 207년에 17만 호의 수용가를 확보하여 합계로 39만 호에 공급하고 있다.

※ 출처 : <일본전기협회보>

